

중소 '장애인 의무고용' 돈으로 떼운다

강제규정 지역제조업체 실정 반영 못해 거센 반발 작년 광주 22억·전남 15억원 부담...전년비 2.3배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이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세심한 기술을 요구하는 제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이 기업실정에 맞지 않지만 이를 강제하고 있다"며 "매년 부담금은 늘고 있어 경영에 큰 부담이 된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6일 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사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1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올해 근로자의 2.5%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여건상 특수한 기술이나 신체조건 등을 요구하는 중소기업까지 일괄적으로 의무고용을 강요하고 있어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납부하는 업체가 증가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광주지역 업체들이 신고한 부담금 액수는 22억 2천 221만원으로 전년 11억 1천 696만 원에 비해 배 가까이 늘었다.

전남지역은 더욱 심하다. 지난 2010년 5억 6천 269만 원에 불과하던 것이 1년 새 15억 5천 924만 원이 신고돼 약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수치상으로만 보더라도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을 선택하고 있는 업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방증이다.

여기에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업체가 감수해야 할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이 올부터는 5.6%가 올라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관계법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시 1명당 고용 부담 기초액이 56만원이었지만 올부터는 59만원으로 상향됐다.

즉 상시 2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 상당인 월 95만 7천 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법적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 지난해보다 5.4% 인상된

1명당 월 88만 5천 원을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면 10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기업이 장애인 3명만 고용할 경우 2명에 대해서는 월 88만 5천 원의 부담금을,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월 59만 원의 부담금을 지불해야 할 형국이다.

장애인 고용의무율은 2010년 2.0%, 지난해 2.3%, 올해 2.5%로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의무고용 부담금도 이와 비례해 2010년 53만원, 지난해 56만원, 올해 59만원 등으로 매년 오르고 있다. 또한 이같이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시 '채찍'의 강도는 높아지고 있는 반면, 모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현재 의무 고용률을 초과해 장애

인을 고용하더라도 지급하는 장애금은 1인당 월 15만~250만원으로 3년째 그대로인 실정이다.

광주 하남공단의 A제조업체 김모 대표는 "전문성과 섬세함을 요하는 기술 분야나 운동량을 필요로 하는 작업에는 현실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렵다"며 "이같은 현실을 도외시한 일괄적으로 부담금 부과를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사 김진환 과장은 "일부 특수 중소기업들은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다"며 "하지만 전문 기술 등이 뒤따라야 하는 업종의 경우 장애인 채용을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연오 기자 yopark@kjdaily.com

자영업자들 카드사에 뿔났다

"수수료 안 내리면 20일부터 신한카드 결제 거부"

전국 자영업 연합체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업계 1위 회사를 상대로 대대적인 실력행사에 들어간다. 20일부터 서비스 요금 등을 결제할 때 신한카드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 연합체에는 유흥업소, 학원, 카센터, 보석상, 세탁소, 이·미용실 등 일상생활과 관련한 대부분 업종이 포함돼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유권자시 민행동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는 카드 수수료를 내리지 않으면 20일부터 신한카드를 영업 현장에서 거부하기로 했다.

신한카드가 표적이 된 것은 카드 수수료가 가장 높은 카드인 신한카드가 업계 1위 회사로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도 수수료 인하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신한카드 거부에는 유흥주점, 단

란주점, 사진관, 카센터, 공인중개사, 학원, 숙박업, 귀금속점, 학생복 판매점, 마시지업, 노래방, PC방, 중소 소빙물, 피부미용업, 온천, 세탁업 등 60여개 업종 종사자들이 참여하기로 했다. 해당 업소는 전국에서 100만여 곳에 달한다.

유권자시민행동은 회원 업체에 '20일부터 신한카드 거부한다'는 안내문을 6일부터 배포, 업소 입구와 카드 결제기 옆에 부착하도록 했다.

신한카드에도 이런 내용의 서한을 급우에 보낼 계획이다.

신한카드는 카드업계를 대표하는 업체다. 회원 수만 2천여만명에 달하며 가맹점은 250만여곳이다. 가맹점 중 절반가량이 결제 거부에 나서면 신한카드로서는 큰 충격을 받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금감원, 과열조짐 저축성보험 '특별검사'

현장점검 등 대응 나서

저축성보험 시장이 이상과열 조짐을 보여 금융당국이 특별검사와 현장점검에 나섰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저축성보험 시장 규모는 2010 회계연도(지난해 3월 말) 현재 42조 4천 억 원으로 2년 전보다 10조 원(30.8%) 증가했다.

이 기간 손해보험사의 저축성보험 판매가 4조 3천 억 원에서 8조 8천 억 원으로 100%가량 급증했다. 생명보험사도 28조 1천 억 원에서 33조 6천 억 원으로 판매량을 19.6% 늘렸다.

저축성보험은 보장 기능이 거의 없다. 보험사들이 '은행 예금보다 이자가 후하다'고 꼬드겨 저금리 시대 목돈마련 수단으로 홍보하는 상품이다.

금감원은 저축성보험 보험료를 손익계산에 반영되지 않는 '예수금'으로 분류해 보험사들의 영업유인을 억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 까닭은 앞다퉈 금리를 올리고 수수료 지출을 늘리는 출혈경쟁이 보험사의 건전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연합뉴스



"봄옷이 나왔어요" 임종이 지나면서 백화점에는 벌써 봄이 왔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4층 타스타스매장에서 산뜻한 색상의 코트와 니트가디건 등을 선보여 여성고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롯데백화점광주점 제공

"한우암소 감축 29일까지 신청하세요"

농식품부, 지역 축협서 접수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29일까지 지역 축협에서 한우 암소 감축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사육두수 증가로 급락한 한우 값을 안정시키려고 올해 300억 원을 들여 한우 암소 10만 마리를 감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암소 1만 3천 941마리를 감축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농가 신청을 받아 8만 6천여마리를 추가 감축할 예정이다.

감축 대상은 외모심사결과 한우로서 부적합한 암소와 2등급 이하 수소를 출산한 암소, 유전능력평가 결

과 하위 10%인 암소 등이다.

시·군·구 별로 구성된 '감축대상 암소 선정협의회'가 3월 중 감축 대상 암소를 선정해 해당 농가와 축협조합에 통보할 예정이다. 선정협의회는 시·군 담당자와 지역의 개량전문가, 축협, 축산물품질평가원, 종축개발협회, 한우협회 관계자 등 7명 내외로 구성됐다.

감축 대상으로 선정된 암소는 송아지 출산 경험이 없으면 마리당 50만원, 출산 경험이 있으면 30만원의 감축 장려금이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정부 정책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해 농가별 암소 감축 한도를 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국세청, 부유층 탈세 끝까지 추적한다

신고 포상금 최대 10억...친인척 자금 출처·가족 추적

국세청이 대기업 사주, 100억원 이상 체납자, 역외탈세 고액체납자 등을 중점관리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무한추적팀'을 가동한다.

6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6일 오전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2012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추진기로 결의했다.

재산을 숨겨준 친인척에 대한 자

금출처조사와 재산수색은 물론 배우자, 동거가족의 외국 출입국 현황과 외국 재산현황, 생활실태도 감시하기로 했다.

탈세거제에 공조한 한쪽이 상대방을 알리면 가산세 감면, 처벌 경감 등 혜택을 주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의 도입도 검토한다.

탈세가 단순한 조세회피 차원을 넘어 지능적인 범죄로 진화하고 있

다는 판단에 따른 대응책이다.

1억원 이상 미정리 체납은 2009년 3천 687명, 1조 2천 651억원에서 작년 4천 816명, 2조 37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효과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기존의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17개반 192명으로 구성된 이 팀은 서울, 중부, 부산 등 지방국세청 3곳에서는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된다.

/*박연오 기자 yopark@kjdaily.com

세계 수준 중소·중견기업 키운다

광주시, 내일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지원 간담회

광주시가 세계적 수준의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식경제부의 공모사업에 지역 유망기업이 다수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시는 오는 8일 오전 '2012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공모사업 신청 조건을 갖춘 10개 기업체 관계자를 시청으로 초청해 사업설명회와 함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경부는 이날 오후 2시 광주테크노파크 로보센터 대회의실에서 지역 설명회를 개최한다.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는 지경부가 2020년까지 글로벌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 300개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선정 기업은 기술개발, 시장확대, 인력지원, 자금지원, 컨설팅 등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 자격은 전년도 매출액이 400억원 이상(단, 시스템 SW개발공급업 등은 100억원 이상) 1조 원 미만으로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이 평균 2% 이상이거나,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15% 이상인 기업이 해당된다.

시는 신청서류의 핵심인 성장전략서(시장확대 전략, 기술확보 전략, 투자 전략, 경영혁신·고용 전략 분야) 작성부터 현장 평가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를 광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전화 955-4045) 또는 시청 기업지원과(전화 613-3871)로 하면 된다.

/*김종민 기자 kim777@kjdaily.com

네티즌 66% 이동통신 요금 불만

CJ헬로비전은 이동통신 요금에 관한 자체 온라인 설문 결과 응답자의 66%가 기존 이동통신 요금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CJ헬로비전은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4일까지 자사 이동통신저관매(MVNO) 서비스인 헬로모바일

홈페이지(www.cjhello.com)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6%가 '현재 사용중인 이동통신 서비스가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 응답자의 96%는 합리적인 요금제와 실속 있는 혜택을 원한다고 밝혔다.

누구나 쉽게 바르는 황토 벽지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살아 숨쉬는 고어텍스 특허공법 천연황토 코팅제!!

▶ 용도

어린이집·유치원·한옥 내·외부·방바닥·전원주택·경로당·아파트·펜션·찜질방·카페·휴집
외벽·목재·양어장·물탱크·기타 인테리어를 요하는 곳
비가 오면 축축하거나 물이새어 곰팡이 생기는 모든 곳
기존 황토미장된 곳이나 도배지를 뜯지않고 위에 시공을 요하는 모든 곳
...비염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방이나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 친환경성

천연황토, 게르마늄, 솔잎, 편백나무, 약쭉, 참숯, 은행잎등 건강에 좋은재료를 엄선하여 고분말로 만들어 술향기나는 친환경 웰빙제품입니다.

▶ 색도조절제 화이트(600g) : 원하는 색상 조절가능

저가 황토 제품과 비교 절대 불가!!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시중에 검증 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태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 업체입니다.

전화 문의시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구입시 시의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드림코리아
DREAM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korea.biz